

# 펠리페 종료 직전 동점골... 1위 자존심 지켰다

K리그2, 광주 FC 부산 원정 1-1  
1·2위 몸싸움 치열... 경고 쏟아져  
승점 2점차 유지... 11경기 무패

돌아온 펠리페가 '해결사'가 되어 광주FC의 1위를 지켰다.

광주가 12일 구덕운동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하나원큐 K리그2 2019 1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펠리페의 페널티킥으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는 사실상 승점 6점 이상이 걸린 '승점 전쟁'이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광주는 올 시즌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 속에 6승 4무(승점 22)를 기록하며 선두 질주를 이어왔다. 부산도 26득점이라는 화력을 앞세워 6승 2무 2패(승점 20)로 승점 2점 차 밖에서 광주의 자리를 노려왔다.

광주가 부산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1위 독주에 속도를 내느냐 아니면 부산이 새로운 선두로 치고 오를 수 있느냐가 걸려있던 '승점 전쟁'.

그라운드에서는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졌다.

승기를 잡기 위한 치열한 몸싸움이 전개되면서 많은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이런 과정에서 두 차례 양 팀 선수들의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전반 40분 이후 5분 동안 무려 5개의 경고 카드가 쏟아지기도 했다.

전반 초반 부산의 공세에 시달린 광주가 21분 모처럼 슈팅 기회를 잡았다. 골대 오른쪽에 위치했던 펠리페가 중앙에 있던 이희균에게 공을 밀어줬지만 상대 수비수의 발에 막혀 제대로 슈팅을 하지 못했다. 이렇다 할 공세를 펼치지 못한 광주가 점유율에서도 밀리며 전반이 마무리됐다.

후반에도 부산이 경기 흐름을 주도했다.

부산의 거친 수비와 매서운 공세에 밀린 광주는 후반 19분 첫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상대의 거친 수비에 고전하던 여름이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그라운드에서 물러났다.

여름을 빼고 김주공을 투입하면서 전열을 가다듬



광주FC선수들이 12일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2019 11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펠리페의 페널티킥으로 1-1 동점을 만든 뒤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는 사이 부산이 광주를 몰아붙였다.

부산 권용현이 골대 왼쪽에서 띄운 공이 광주 골키퍼 윤평국의 손에 맞고 호물로 앞으로 향했다. 호물의 슈팅이 빗나가면서 광주가 한숨을 돌렸지만 이후 부산의 세 차례 코너킥이 이어졌다.

상대를 잘 봉쇄하는 것 같았지만 후반 22분 부산

이 환상적인 패스로 공격의 불씨를 살렸고, 호물로 패스를 받은 이동준이 페널티 박스 오른쪽 측면에서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광주의 골대를 뚫었다.

선취점을 내준 광주가 후반 26분 이희균을 빼고 윌리안을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잠잠하던 펠리페가 후반 28분 왼발 슈팅을 시도

했지만 골대를 비껴갔다. 후반 35분에는 김주공의 슈팅이 골대 맞았고, 윌리안이 튀어나온 공을 재차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후반 43분 펠리페의 헤더가 아쉽게 상대 골키퍼에 막히며 광주의 무패행진이 중단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펠리페가 이어진 공격에서 상대 수비벽에

막혀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직접 키커로 나선 펠리페는 침착하게 부산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광주가 이어진 4분의 추가 시간을 잘 막으면서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과 함께 1위 자리를 수성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안타 11개 치고 3득점... KIA 답 없는 '고구마 타선'

주말 SK와 3연전 스윙패  
투·타 부진 여전... 다시 풀찌 추락  
외인 타자 해즐베이커→터커 교체



KIA 타이거즈가 다시 10위로 추락했다.

KIA가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시즌 6차전에서 3-4로 졌다.

안방에서 치러진 주말 홈 3연전에서 모두 패배를 당한 KIA는 키움 히어로즈를 9-3으로 잡은 KT 위즈에게 9위 자리를 내주고, 최하위로 다시 내려갔다.

이날 패배로 올 시즌 KIA의 전적은 13승 27패 1무가 됐다. 승률은 0.325까지 떨어졌다.

안타 11개와 볼넷 5개를 가지고 3점을 뽑아내는 데 그친 타선의 집중력이 아쉬웠다.

2군 재정부 후 선발로 복귀한 김기훈이 1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했지만 2회에만 3개의 볼넷을 기록하면서 선취점을 내줬다. 김기훈은 3회 1사 1루에서는 최정에게 좌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허용했다. 1·2회에 잔루 4개를 남겼던 KIA 타선이 선두타자

김선빈의 볼넷으로 3회 공세를 시작했다. 안치홍의 좌측 2루타에 이어 최형우의 2루타가 이어지면서 2-3.

이창진의 희생번트와 이인행의 볼넷으로 1사 1:3 루까지 만들었지만, 추가 점수는 없었다.

최정민의 대타로 들어간 이명기가 헛스윙 삼진으로 아웃됐고 1루 주자 이인행이 2루 도루를 감행했다. 2루에서 셰이프 판정이 나왔지만, 홈으로 뛰어 들던 최형우가 아웃되면서 순식간에 이닝이 종료됐다.

4회도 아쉬웠다. 1사에서 한승택과 류승현의 연속 안타에 이어 김선빈의 볼넷으로 만루가 됐다. 그러자 SK가 선발 박종훈을 내리고 이승진을 투입했다.

투 볼에서 안치홍의 배트가 높은 볼에 움직이면서 2루 땅볼이 됐다. 3루 주자 한승택이 홈을 밟으면서 3-3. 최형우의 볼넷으로 다시 2사 만루가 됐지만 이창진의 타구가 중견수 앞으로 향하면서 역전에는 실패했다. 이후 5회를 빼고 KIA는 매 이닝 출루했지만 득점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KIA는 7회 실책성 수비로 아쉬게 패했다.

3회 2사를 끝으로 김기훈이 물러난 뒤 전상현이 6회까지 1안타만 내주며 깔끔하게 피칭을 선보였다.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를 전상현이 선두타자 안상현에게 중전안타를 내준 뒤 김강민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고 이날 역할을 마무리했다.

이어 하준영이 등판해 고종욱과의 승부에 나섰다. 2루수 앞으로 공이 가면서 땅볼로 투 아웃이 되

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안치홍이 공을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내야 안타가 기록됐다. 최정을 고의 사구로 내보내면서 1사 만루. 로맥의 타구가 우익수 방향으로 높게 뛴고,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3-3의 균형이 깨졌다. 그리고 그대로 점수가 유지되면서 로맥의 희생플라이는 결승타가 됐다.

KIA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교체 카드'를 잇달아 사용하고 있지만 승리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KIA는 지난 10일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외국인 선수 교체를 단행했다. 부진으로 퓨처스리그로 내려보냈던 해즐베이커를 이날 웨이비 공시한 KIA는 외야수 프레스턴 터커(Preston Tucker·좌투좌타·1990년생) 영입 추진을 발표했다.

터커는 13일 입국해 메디컬 체크를 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KIA 유니폼을 입게 된다.

KIA는 12일에는 엔트리를 교체했다.

앞선 잠실 원정에서 수비 도중 공에 오른 손가락을 맞았던 김주찬과 득점권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나지완을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파이팅이 좋은 이인행과 윤재환을 등록시켰다.

이날 6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했던 이인행은 첫 타석에서 우측 2루타를 때리고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출루하며 기대했던 역할을 해냈지만, 후속 타 볼발로 홈을 밟지는 못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2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 SK 8회초 2사 1루에서 8번 배영섭 타석 때 1루주자 김성현이 도루를 시도하다가 KIA 안치홍과 한승택의 협살에 걸려 아웃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덕아웃 T 특특 홈런 허용 장지수 "처음 맞아봤어요"

▲처음 맞아봤대요 = '투키' 장지수에게 올 시즌은 새로운 연속이다. 고졸 신인 장지수는 지난 11일 SK전을 통해 시즌 7번째 등판을 소화했다. 장지수는 이날 3-9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올라 선두타자 로맥에게 초구 홈런을 허용했다. 장지수는 이어진 대타 김재현과 승부에서도 중전안타를 내렸지만 이후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12일 훈련이 끝난 뒤 전날 피홈런에 대해 질문을 받은 장지수는 "신기했다"며 이색적인(?) 소감을 밝혔다. 옆에 있던 성남고 1년 선배 하준영은 "홈런 처음 맞아봤대요"라면서 후배가 피홈런을 신기해한 이유를 설명해줬다. 장지수는 "다음에 로맥을 다시

만나면 다르게 변화를 줘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잘 준비하고 올라왔으면 = 12일 경기에 앞서 KIA가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내야수 김주찬·황운호, 외야수 나지완이 엔트리에서 빠지고 투수 김기훈과 함께 내야수 윤원주, 외야수 이인행이 등록됐다. 김주찬은 앞선 잠실 원정에서 수비 도중 공에 맞아 오른손을 다치면서 재활군으로 내려간다. 나지완은 전날 홈런을 기록했지만 득점권에서의 모습이 아쉬다는 평가다. 김기훈 감독은 나지완의 말소에 대해 "득점권에서 승부가 아쉽다. 잘 정비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내가 이긴다는 생각입니다 = 씩씩한 마무리 문경찬이다. 마운드 줄부상 속에 마무리 역할을 맡은 문경찬은 지난 9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5-3으로 앞선 9회 2사 1루에서 등판해 좋은 타격감을 과시하던 허경민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두 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문경찬은 12일 SK 경기에 앞서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이긴다는 생각이었다. 2점 차 상황이었기에 타자에 집중했다"며 "오늘도 경기에 나가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바람대로 문경찬은 이날 3일 만에 등판해 7개의 공으로 투아웃을 잡으며 제 몫을 했다. 하지만 기록은 챙기지 못했다. 문경찬은 3-4로 뒤진 9회초 1사에서 출격했고, 9회말 KIA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경기는 그대로 KIA의 패로 끝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